

## 치 사

마음의 터가 깨끗하면 그만큼 햇살은 빛나고 푸르른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역동적인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좋은 때에 부처님 오신 뜻을 봉축하는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는 강형진 단장과 단원들이 평화와 행복을 감동으로 전하겠다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1999년 시작하여 어느새 제25회 공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하게 불교음악의 길을 걸어오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향기롭게 채워주었습니다.

특히, 올해 봉축 표어인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의 의미를 발현하기 위해, 조계종 중앙신도회의 “행복바라미”를 알리고 지원한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큰 감동을 나눠주는 뜻 깊은 연주회라 여겨집니다. 나아가 음악으로 불교 문화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사회의 어둡고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징검다리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양한 창작공연이 아우러진 이번 공연의 인연으로 많은 불자와 국민이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자비의 큰 바다를 이루고, 빛나는 무대를 통해 신심이 돈독한 많은 전문불자음악인들이 발굴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향기로운 공연을 위해 진력을 다하시는 연주자와

후원회 여러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주신 많은 관  
제자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함  
께 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밝은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  
합니다.

**불기2558(2014)년 4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